

**전일동향**

전일대비 14.50원 상승한 1,467.2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4.50원 상승한 1,467.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30원 상승한 1,466.00원에 개장했다. 갭업 출발한 환율은 트럼프 관세 우려에 장 초반 일시적으로 1,470원을 상회했다. 다만,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협상 제안 준비에 달려 추가 강세가 제한되자 환율도 이에 연동되어 1,467.2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4.0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6.00	1472.50	1462.00	1467.20	1469.20
엔화	936.75	952.70	931.75	948.26	-	
유로화	1506.98	1511.48	1482.51	1510.44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55	-5.86	-13.53
결제환율(수입)	-1.11	-4.6	-10.92	-25.0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관세 부과 유예에...1,45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67.20) 대비 11.90원 하락한 1,453.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의 관세 유예 결정에 따른 달러 되돌림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밤 트럼프는 멕시코 대통령과 국경 보안 문제를 합의하며 관세를 3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달러화는 관세 우려가 촉발한 상승폭을 하루만에 되돌리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뉴욕장 마감 이후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도 유예되자 호주 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는 추가 하락했다. 금일 환율은 관세 우려 완화에 따른 달러 되돌림을 소화하며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여 달러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와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도 환율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51.00 ~ 1461.0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688.6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90원 ↓
	■ 美 다우지수 : 44421.91, -122.75p(-0.2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7.6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41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